

# 청화스님

곡성 성륜사 조실

## 가까이서 뵈 큰스님

### “지계없이 마음정화 어렵지요”



3일 전남 무안 해운사에서 법문을 마친 스님이 참석한 불자들과 일일이 눈인사를 나누고 있다.



###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 범해선사 '寬禪'

수백년간 이어진 정치제도가 무너진 조선조말, 민초들의 생활은 삶이란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인간살육이 전국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이때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삶의 희망을 일구며 부처님의 법을 전해 준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그가 곧 범해선사이다. 선사는 조선 순조 20년(1820), 은사(隱士)로서 대문장가인 최수강의 5대손 최철과 어머니 성산 배씨 사이에서 고고의 소리를 외쳤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바닷가를 거니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일어가 당신을 감싸 안으며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이후 태어난 이가 범해 선사다. 휘(諱)는 각안(覺岸), 자(字)는 환여(幻如), 호(號)는 범해(梵海)다.

선사께서 우리에게 전한 깨침의 소리는 다음과 같다.

관선(寬禪)

### 수십억겁 이어온 생명의 인연 흘려보내도 '다시 장춘동일세'

參善名家最後壽  
臨終명가최후수  
因緣厚薄可知  
인연후박가지금  
長春浪送長春洞  
장춘랑송장춘동  
梵海動求梵海心  
범해근구범해심  
詩和竹問題竹葉  
시화죽간제죽엽  
宴開松下聽松琴  
안개하송청송금  
去留有數庸何挽  
거유유수용하만  
桂月團圓照雨襟  
계월단단조양금

몸과 마음을 다하여 도(道)를 생각함으로 길고 깊은 인연 오늘에까지 이어졌네

장춘을 물처럼 흘려보냈는데 다시 장춘동일세.

범해가 일구웠던 구하는 것이 범해 마음인데  
대나무 속에서 시(詩)와 함께 찾지만

기울인다.

소나무 아래서 소나무와 벗하여 거문고 소리 즐기다 보니

덧없이 세월만 가고 늙은 수레바퀴처럼 되었고

8월의 교묘한 달빛만 양 가슴속에 남았네. <범해선사유집>

수십 억겁을 이어온 생명의 인연이란 물처럼 흘러 보낸다고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선시(禪詩)다.

선사께서는 14세에 대문사에서 호의시요(鶴衣始誦) 선사를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초의(草衣) 선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갑진년 봄에 방장이 되었다.

선사는 일생을 참선으로 또는 민중들과 더불어 글을 쓰면서 시를 짓고 하였다. 더불어 초의 선사의 법을 이어 차 생활을 일과로 삼아 정진했다. 주옥같은 선사의 다시(茶詩)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지표를 제시

하고 있다. 선사께서는 차 생활을 부처님의 생활이라고 했다. 선사께서 주석하셨던 대문사에는 '다화일어(茶話一如)'라는 어구가 걸려 있었다. 선사의 <화공양기(花供養記)>를 보면, 선사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끔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천신충정(眞神充庭) 오매현령(寤寐見靈)"

꽃을 심고 가꾸면 지나 깨나 천신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을 헛되게 하지 말고 일구웠던 마음을 닦아서 달빛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선사의 가르침이다.

조선 개국 505년이 되던 해인 고종 건양 원년(1896) 12월 26일 77세로 숲속에서 몸을 접었다.

무산(경주 해회선원 회주) 스님은 1943년 경주에서 태어나 13세에 지리산 백운암 범장스님에게 출가했다. 혼성·화엄·효당 스님에게 선과 다도를 수학한 스님은 한국다선학회와 천연염색화회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역대고승의 다시>, <천연염색법 개본> 등 10여권이 있다.

덕높은 스승을 찾아 법문을 청하고, 그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한걸음 한걸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바로 불자의 소명이다.

이 불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매일 첫째 일요일마다 전남 곡성 성륜사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든다. 평생 수행의 길을 걸은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다.

6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던 지난 3일 새벽 5시, 기자도 청화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서울 조계사 앞에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오늘은 성륜사가 아니라, 전남 무안 해운사로 향했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 대박산에 위치한 해운사는 청화스님께서 지은 절이다. 무안은 스님의 고향으로, 스님은 이곳 해운사 토굴에 머물며 수행을 했는데 지금의 해운사 법당이 예전의 토굴 자리이다. 현재는 스님의 제자인 무상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데, 이 해운사에서 봉행된 예수재 회향법회에서 스님이 법문을 하시기로 된 것이다.

서울에서 5시간여를 달려, 무안의 넓은 평야로 둘러싸인 대박산 해운사에 도착했다. 절에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불자들이 당도해 있었다.

"우리 중생들은 본래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제행무상이라, 모든 존재는 본래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 순간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변해갑니다. 만법유정이라, 모든 것은 그때 그때 태어나고 생겨납니다. 그러니 나라고 고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성 그 자리가 바로 순수생명자리입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임을 깨달은 분이 바로 성인입니다.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하나의 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한두교, 불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근원적 생명을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것 일뿐 모두 같습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도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찬란한 생명이자, 광명입니다. 진여불성이 나의 근본생명이자 모든 것의 근본 생명임을 깨달으세요."

법문을 마치고, 스님은 대중전 앞마당에 선 불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법단을 내려오셨다. 강마른 몸매에 형형한 눈빛과 자애로운 미소의 스님 모습 자체에서 많은 불자들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는 듯 했다.

“부처님의 계율  
우주의 질서 함축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덕률”

성륜사신도회 부회장인 배광식 거사는 청화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85년인가, 제가 집사람과 스님을 뵈기 위해 태안사에 갔을 때였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때 걸레로 마루바닥을 훑치고 계시다 저회를 맞으셨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스님이 마루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직접 걸레질을 한다는 것ですよ. 그때 <금강경>에 '희유세존(希有世尊)'이라는 감탄사가 나오게 된 연유를 깨달았습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스님

의 자세, 행동 그대로가 바로 가르침이 되어 부단히 우리 불자들을 각성시키시는 걸요."

스님을 곁에서 지켜본 불자들은 한결같이 항상 겸손하고, 자비하신 청화스님의 모습에 감복한다. 찾아온 불자들이 행여 불편할까 항상 편하게 앉으라 하고, 방석이라도 없으면 이가 있으면 스님이 앉았던 방석을 내어준다. 몇 해 전에는 당시인 평생 지니며 굴리면서 수행의 도반으로 삼아온 은 염주를 '우리는 선우'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에 내놓으시기 하는 등 자비로운 스님의 면모는 널리 알려져 있다.

스님은 일찍이 14살 되던 해에 일본으로 건너가 5년제 중등학교과정을 마친 후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고향 무안에 청운고등학교를 세워 후학을 지도했다. 그 학교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청운중학교다. 현대 물리학과 철학부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님은 청년시절부터 여러 저적을 두루 섭렵했다. 그러나 궁극에도 풀리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의문은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는데 금타스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의문을 풀게 되었다.

었다 한다.

스님은 은사 금타스님의 유교들을 모아 펴낸 <금강심론>에는 근본불교의 핵심으로서 견성성불에 필수적인 근본선정인 구차제정의 역설과 각 경론의 모든 수행법과 수행의 위치를 종합 회통하여 해탈 16지로서 수행차서를 정립해 놓았는데, 특히 불교의 우주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이같은 금타스님의 영향으로 현대물리학과 철학 등에도 매우 해박하고 법석에서도 이를 불교적으로 풀이한 법문도 자주 하신다.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물질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입자를 분석하면 핵전자의 소립자 단계를 거쳐 중에는 텅 비어버리는 공의 세계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그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순수에너지가 바로 불성이라는 것이다. 현대물리학과 양자론과 현대과학으로도 증명하지 못하는 순수 에너지의 실재를 설명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를 스스로 없이 펼쳐보이시는 것이다.

스님은 수행이 철저하셨던 은사스님을 따라 묵언과 장좌불어를 평생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오셨다. 상원, 백암암 등 여러 토굴에서 50여년간 늘 검소함과 부지런

##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너그러워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욱(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 조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중(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명(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제)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 大圓佛敎大學

학장 헤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 팔리경장 한글 번역 불사 회원 모집



2,600년 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숭한 역사의 위기속에서도 존속해 온 소중한 팔리경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10년 대 불사가 대중불교운동의 요람인 남산 대원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불교 바로 대중불교운동은 부처님의 원음인 팔리경장 번역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신명을 다해 이번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최봉수교수

#### ■ 연찬회원(월 30,000원)

팔리 경장 연찬회에 참가하여 우리말로 옮겨진 팔리어 근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강의 TAPE를 우송해 드립니다

#### ■ 구독회원(연 30,000원)

매달 또는 격월로 발행되는 팔리경장을 보내드립니다.

#### ■ 후원회원(경전 1권당 2,000원)

군부대, 병원, 학교에 팔리경장을 법보시 할 수 있습니다.

#### ■ 송금계좌(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우체국 011791-01-000469 국민은행 098-01-0230-530

#### ■ 팔리 경장 연찬회

일시 :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 대원정사 (02-754-1613)

강사 : 최봉수 교수

남산도서관

□ 남산순화도로

□ 하얏트

□ 대원정사

해방촌오거리 1